

**THE HISTORY OF
EARLY CHRISTIANITY**

초대교회사

History of early Christianity

가이사라의 유세비우스

- 260년 출생
- 콘스탄틴과 그 행정의 열렬한 지지자
- 스승: 가이사라의 팜필루스 (순교자)
- 도피 중 집필 <오리게네의 변호>

<교회사>(Church History)

-- 초대교회에 관한 현대 지식의 50%

History of early Christianity

- 박해, 도피 상황에서 맞은
 - 콘스탄틴에 의한 박해 종식
 - 출애굽 사건과 유사한 하나님의 직접 개입
(하나님께서서 콘스탄틴을 움직이셨다)
- 유세비우스가 의식한 주된 임무
 - 가이사라의 감독으로 선출됨
 - 가이사라뿐 아니라 팔레스타인 관할
 - 박해로 흩어진 기독교인 규합과 조직
 - 평화와 통일성 강조
 - 교회 분열의 위험(신학 논쟁/ 아리우스 논쟁) 무시

History of early Christianity

유세비우스의 공과

- 황제와 교회의 복리와 통일을 추구(니케아 공의회)
- 콘스탄틴을 찬양하는 연설
- 콘스탄틴에게 유세비우스
 - 많은 기독교인으로부터 존경 받는 유세비우스의 지지
- 콘스탄틴 사후의 유세비우스
 - 지배자를 극찬하는 저술
(콘스탄틴에 대한 감사의 정)

History of early Christianity

유세비우스의 역사 이해

- 로마제국의 맥락에서 본 이뉴 역사의
 - 궁극적 목표가 곧 기독교이다!
- 모든 진리는
 -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육하신 로고스에서 비롯
- 철학과 히브리 경전은 공히
 - 복음을 위한 준비 (철학 : 구약)
- 로마제국이 지중해 연안에 이룩한 평화는
 - 기독교 신앙 전파를 위한 하나님의 예정

History of early Christianity

- 유세비우스 역사서의 맥락
 - 단순한 과거 사실들의 종합이 x
 - 인류의 역사의 궁극적 목적 = 기독교 진리 증명
 - ※ 콘스탄틴의 회심이 방점
 - ※ 기독교가 로마 전통의 가장 좋은 요소를
완성시키는 것임을 로마 당국자는 몰랐던 것
----- > 박해의 이유
- 유세비우스 역사서의 한계
 - 이러한 신학적 입장 때문에 시대 동향을 비판 못함
 - 유세비우스는 콘스탄틴의 경솔함과 잔인성을 알았다

History of early Christianity

유세비우스의 역사신학 결과와 반응

- 기독교 신학이 새 상황 속에서 형성되는 과정 보전
 - 전통적인 주제들 중 일부를 포기하는 상태를 보여줌
- 새로운 상황에 신학이 어떻게 적응했는지 보전
 - 1) 콘스탄틴에서 시작된 부와 장려함이 하나님의 은혜이다
 - 2) 예배 의식의 결과로 세속 귀족층과 흡사한 종교귀족화
 - 3)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에 대한 기대를 연기시켰다
- 개인 영혼 구원 발달
 - 현세와 내세에서의 하나님 다스림이 아닌

History of early Christianity

- 두 그룹 발흥
 - 1) 사막으로 은둔을 위해 떠나는 자들
 - 수도원 운동의 발흥
 - 2) 교회에 남아서 지적 활동에 꽃을 피우는 자들
 - 제도권 교부들의 태도

History of early Christianity

수도원 운동의 기원

- 콘스탄틴 시대의 번영을 거부한 자
 - 새로운 상황을 타락으로 규정
 - 좁은 문이 너무 넓어졌다
 - 감독들의 정치 혐오
 - 부유하고 권세 있는 자들의 교회로 퇴락
 - 300년간 박해 속에서 살아온 것에 기인한 부적응
 - 죽음과 배교 중 하나를 선택하는 신앙
 - 평안과 안전이 교회의 가장 큰 적
 - > '수도생활이 답이다!'

History of early Christianity

- 콘스탄틴 시대 이전의 수도자들
 - '과부들과 처녀들' (특별한 생활을 하라는 소명)
 - '천국을 위해 스스로 고자된 자들' (오리겐)
 - 영과 육체의 대치 관계 -- > 육체를 복종시키고 벌해야
 - 독신주의 충동 --> 재림에 대한 기대로 강화
- 수도 생활에 대한 외부적 영향
 - 철학적 이념: 스토아 학파 (정념이 가장 큰 적)
 - 지중해 연안의 종교적 관습: 처녀들, 독신 사제들, 고자
 - ※ 니케아 공의회(325년)
 - 극단적인 관습 억제(거세 성직자 해임 및 발탁 금지)

History of early Christianity

사막의 최초 수도자들

- 용어에서 기원을 유추
 - * '수도사' (Monk)라는 용어
 - '고독' (solitary)을 뜻하는 모나코스(monachos)에서 유래*
 - '은자' (anchorite)라는 용어
 - '도망자' (fugitive), '피신한 사람' (withdrawn)을 뜻함
 - ※ 후기 수도자들을 국가의 세금 부과를 피해 마을을 버린 사람들의 운동과 제휴

History of early Christianity

- 수도사 '폴'
 - 제롬의 책으로 소개
 - 3세기 중엽 인물
 - 대추야자만 먹으며 평생을 기도, 100년
- 안토니
 - 아타나시우스에 의해 소개
 - 그리스인과 로마인의 압제와 차별에 시달리던 고프트족
 - 젊은 부자 청년 이야기에서 감동
 - 여동생 분을 제외한 재산 처분 후 가난한 자들에게
 - 추후 여동생을 교회에 맡기고 재산 처분 후 기부

History of early Christianity

- 안토니의 스승 존재
- 금욕 생활, 유혹에 대해 채찍질
- 35세에 본 환상 ----- 악마들의 유혹과
 더 깊은 장소로 이동 수도생활
- 제자및 방문객
 - 기도와 관상의 지혜, 수도생활에 대한 지식
- 제자 수용
 - 제자들을 정기 방문
- 2회의 알렉산드리아 방문 (아타나시우스와의 관계)
- 고프터 구사. 문맹
- 356년 사망 유물: 겹옷 한 벌

History of early Christianity

당대의 은자들

- 이집트 한 지역에만 2만 명의 여성과 1만 명의 남자 은둔자
- 생활
 - 텃밭
 - 바구니와 명석을 짜서 식료품 교환
 - 서적 소유 거부
 - 기억에만 의존하여 성경 전체, 시편/신약을 가르치다
- 감독 임명을 악운으로 여김
('사제' 라는 명칭은 콘스탄틴 이후)

History of early Christianity

- 예배당 참석
- 은둔/ 수도 생활의 도전
 - 교회 지도자들의 생활보다 성결했으므로,
 자기들이 올바른 교리를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함
 - 광신주의로 흘러감
 - 자기들보다 교육받은 자들에게 이용만
 당하게 됨
- 5세기, 폭도로 변한 수도사들
 - 자기들이 정통 교리라 생각한 이론을 교회에 강요

History of early Christianity

파코미우스와 공주수도생활

- 수도원 유입 인구 증가
 - 공주생활 형태의 수도원 (공동생활)
 - 파코미우스 (A.D 286년 출생)
 - 기도와 관상
 - 환상
 - 엄격한 규율
 - 수녀원의 증가 (남성의 두 배)
 - 수도원 행정 -- > 계급 제도

History of early Christianity

- 쟁점
 - 기본 교리 교육을 받은 후 다시 세례
 - 기독교인이 아니다
 - 이집트 농촌의 가난한 사람들
 - 도망친 곱트인
 - 고대 이집트인들의 후손으로서
이집트 사회의 낮은 계층에 속한 계급

History of early Christianity

수도원의 이상과 전파

- 발흥기
 - 4세기
- 전파
 - 고향으로 돌아가 수도사 전설 유포
 - 극단적 금욕생활 과시
 - 콘스탄틴 이후 유약해진 교회 자극
 - 감독과 신학자들의 수도원 가치 발견
 - 저술
 - 계급 체계 호환

History of early Christianity

■ 결과

- 수도원의 대중화
- 성직제도의 가치
 - 감독들의 세속성과 사치에 대한 저항이었던 수도원운동이 성직제도가 추구해야 할 이상으로
 - 현재까지도 진정한 감독은 가능한 한 수도적 이상에 가까울 것
- 서방에서는 수도원운동이 교회의 구제와 선교를 담당하는 도구가 됨
- 제롬, 어거스틴, 바실 등 학자들을 받아들임.
- 공동재산 제도는 '교회' 에서 '수도원' 의 제도로
